

'배운대로 실천에 옮겨라'

벤엘농장 - 조정자 대표

충북지원 과장 이진석



조정자 대표

충북 음성군하면 '고추', 그 고추보다도 더 매운 열혈농가를 소개하고자 한다. 여성으로 힘든 축산업에서 축산에 대한 자부심과 철학을 갖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성을 다하고 있는 조정자 대표이다. 1*등급이상 출현 100% 달성을 목표로 끊임없이 자체진단 및 고급육 관련 강의를 있다면 없는 시간도 할애하여 찾아가는 등 열의를 갖고 있다.

2009년 한우 거세우 출하 두수는 24두, 1*등급 이상 출현율 91.6%, 1**등급 이상 출현율 75%이다.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근내지방도 평균이 7.8%라는 것이다. 그렇다고 육량등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, 등심단면적이 100cm²에 육박하며 B등급 이상이 87.5%이다. 출하시기는 28~30개월령이며 대체로 29개월령에 출하하는데 대다수 도체중이 410kg 이상이며, 평균 도체중 449.8kg로 아래 표에서와 같이 전국 및 충북 대비 상당히 우수한 등급판정결과를 보이고 있다.

2009년 등급판정결과(거세 24두)

구분	등지방 두께 (mm)	등심 단면적 (cm ²)	도체중 (kg)	근내지방 (No)	1B등급 이상 출현율(%)	1등급 이상 출현율(%)	380kg 이상 출하율(%)
전국(A)	12.6	88.0	413.5	5.3	64.4	79.0	77.3
충북	12.3	88.0	413.1	5.4	65.5	79.8	77.1
벤엘농장(B)	12.6	97.0	449.8	7.8	87.5	100.0	95.8
B-A	-	9	36.3	2.5	23.1	21	18.5

사양관리

자신만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"배운 대로 실천에 옮기면 된다"며, 그만큼 배우는 것 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. 1988년에 본격적으로 축산업을 시작하여, 1999년에는 암소를 시작했으며 현재 일괄사육 방식 140두 정도 규모의 HACCP 지정 농가이다. 암소 개량에 중점을 두어 등급판정 결과를 항상 기록 및 관리하며, 암소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질병 및 사료에 더 많은 심력을 기울이고 있다. 무엇보다 역점을 두는 것은 암소 관리로 15개월령에 초임을 시켜 2월쯤에 초산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, 등급판정 결과 하위등급 출현 시 조기 출하하는 등 암소개량에 힘쓰고 있다. 거세우 경우 5~6개월령에 거세하여 육성기 때 양질의 조사료와 배합 및 발효사료 등을 급이하고 24개월령에 비육후기 처리를 시작하여 29~30개월령에 음성축협과 연계하여 출하를 한다.

향후계획

사육 면적이 작다보니 규모 확장에 문제가 있어 보다 넓은 곳으로 이전 후 현대식 축사에서 체계적으로 사육할 계획이다. 자신의 노하우를 자신의 것만이 아니며, 변화하고 발전하는 축산기술을 지속적인 습득을 위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조정자 대표의 벤엘농장에서 한우 농가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.